

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만, 총지급 권리사용료가 수입부분품 등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 전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에 본문에서 "제1항의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 따라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2) 구체적 판단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①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이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I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의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그리고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I 담배 완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제반 무형재산권) 중 상표에 관한 권리 역시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I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도 아니다. ③ 나아가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를 안분하는 방법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